A Daily Bread

בייה

-Date: 24 Tammuz 5786 (July 9, 2026)
Torah Portion: Mattot/Massei
Topic: The Path of Elohim, Part 3

열방인 모압의 들판에서 갱신된 언약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 맺었던 그전의 언약의 계명들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돌판에 새겨 주신 계명들의 순종의 영역이 손과 발의 행위로부터 시작하였던 것을, 메마른 심령의 땅에서 드디어 여호와를 찾았을 때에, 친히 심장에 여호와께서 할례를 해 주심을 통하여, 한 층 더 높고 넓고 깊은 세계까지 계명 순종을 이어 나아가는 하는 언약이 갱신 곧 새 언약입니다. (인본주의 서양의 종교 철학이 내린 새 언약의 정의가 아닌,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집중해 들어야, 갱신 언약의 참뜻을 깨달음 받아 완전하신 진리, 토라의 계명을 준행하게 됩니다.)

가장 명확한 연결 고리는 히브리서에서 발견됩니다. "피난처를 찾아 도피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도록 강력한 격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 6:18). 여기서 '피난처를 찾아 도피했다'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תּוֹרָה (토라 ; 가르침, 정직한 법도)에 명시된 'מִקְלָט (밐랕 ;도피성)'을 연상시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호슈아를 살아 계신 토라 말씀이심과 여호와께서 토라에 말씀해 주셨던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찾아 여호와께 연합 시키시는 구원자로 믿은 네짜림을 죽음을 피해 여호와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성소"로 도망치는 피난자들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호슈아(예슈아)의 말씀 또한 토라의 이러한 뜻을 밝게 비춰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이스라엘의 모든 길이 도피성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예호슈아께서는 모든 회개한 죄인들이 여호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살아 계신 길(도)'로서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그분은 토라의 양식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장 깊은 의도까지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민수기 35 장 25 절의 말씀은 과실치사로 생명을 잃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토라의 규례는, 요한복음 14 장 6 절의 말씀을 더욱 심오한 깊이로 내려가게 이끌어줍니다. 현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의 영적 상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였기에, 그의 죽음은 공동체적 책임의 한 시대가 끝나고, 연이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서 7 장에서 10 장은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예호슈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한 토라에서의 예표를 증거로써 기록합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일—즉, 여호와와의 화해와 직접적인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을 토라의 골수인 의도까지 도달하시며,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의 계명이 완전하심을 한 사람의 육신 내에서 성취하십니다.

사도 요하난(요한)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곧 의로우신 마쉬아흐 예호슈아가 계십니다"(요일 2:1). 토라의 기록은 과실치사범을 위하여, 한 대제사장의 생애 가운데 피난처를 제공하셨으며, 네짜림 갱신서는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토라에서 예표하신 대제사장의 최대 사명- 영원한 변호자인 중재의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으심 받으신 마쉬아흐이심을 제시합니다.

베드로 역시 동일한 초청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고,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시는 때가 임할 것입니다"(행 3:19).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통회하며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마련해 두신 피난처, 옛길 선한 길, 완전한 토라의 계명을 지키며 복과 은혜 가운데 성실히 달려가는 선한 경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괄하는 놀라운 순회적인 양식(패턴)이 드러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카인은 방랑자가 됩니다. 과실치사범은 도피성으로 피신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로 유배됩니다. 열방 민족들 또한 죄로 인해 유배된 삶을 삽니다. 마침내 마쉬아흐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네푸쉬(영혼)인 유배자들을 다시 토라의 안전한 담장안으로 모아서 영혼의 근본되시며 본향되신-여호와께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주요한 유배 사건은 궁극적으로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단지 징벌하기 위해 유배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타락한 네훼쉬(영혼)을 그 거룩하신 분의 생명 빛으로 영원히 구속하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육신의 옷을 덮혀 주시며 온 권능은 여호와 한분으로부터 나오시며,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온 마음 정성으로 순종을 결심할 그 한때까지만 유배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토라의 교훈은 깊은 희망을 줍니다. 한사람이 아무리 멀리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방황했다 해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정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예비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하십니다. 죄인이 그분을 찾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분께서는 이미 길을 가리키는 사람, 천사, 물리적 환경과 영적인 환경의 표지판들로 그 옛길 생명의 선한 길을 충분한 예표들로 이미 표기해 두셨습니다.

토라는 죄의 광야를 가로지르는 큰 길을 냅니다. 선지자들은 방황하는 자들에게 샬롬을 주시는 생명의 도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성문서는 죄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지극히 오래 참으시는 여호와의 자비를 찬미 송축 드립니다.

황량한 사막을 지나며 고난을 미리 걷도록 선택하신 빛의 선생님들은 그 길을 온 호흡으로 가르치며 설명합니다. 조하르(Zohar)는 그 길의 숨겨진 신비를 밝혀냅니다. 타냐(Tanya)는 그 심령 내면의 실체를 드러내어 줍니다. 마쉬아흐께서는 친히 자신이 그 '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을 단순히 용서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사랑으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여호와의 마음을 보여주는 토라의 가장 아름다운 계시 중 하나입니다. 도피성은 공의가 결코 자비와 분리되지 않으며, 거룩함이 결코 긍휼을 저버리지 않고, 신성한 심판의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 회복을 향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주의 영원하신 왕께서는 그 최정상의 목적지에서 홀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거룩하신 영을 보내주시어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으시며, 모든 장애물을 치우시고, 갈림길마다 표지판을 세우시며, 쉐키나 (여호와 엘로힘의 임재)를 통해 유배중인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시고, 기꺼이 돌아오려는 모든 네훼쉬(영혼)를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임재 안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변치않는 영원한 패턴입니다.

토라에서 의도까지 확립되고, 선지자님들에 의해 조명되며, 현인 선생님들에 의해 펼쳐지고, 초자연적인 신비를 통해 드러나며, 하씨둩(인애하심)을 통해 심히 깊어지고, 예호슈아 하마쉬아흐의 기름 부으심 받은 신성한 사역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표현된 것—곧, 이 땅 사방에 흩어져 태어나게 하신 모든 이스라엘의 유배자들이 다시금 아들이 되도록 하신 자비의 신성한 길입니다.

샬롬